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필리핀 수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지만 시내와의 거리는 교통편을 이용하면 10분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수빅은 외국인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치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수업	수업은 월요일 ~ 금요일 매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지 선생님들과의 1:1수업 4시간 그룹별 수업 4시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1:1 수업 같은 경우는 매시간 담당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룹별 수업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룹이 정해지고 정해진 그룹별로 4시간씩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룹 수업 중에는 MMC (광고제작, 뮤직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신후 편집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거의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적이고, 저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주기위해 노력하시는게 느껴졌었습니다.
Activity	매주 금요일 오후 3시~4시에는 Activity 시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게임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 Activity 가 3번 있었습니다. 1. City tour -> 시티투어는 도착 다음날에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조를 이루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며 환전도하고 필요한 물건들도 구입하며 투어를 합니다 2. 요트 투어 -> 요트 투어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가서 맥주도 먹고 사진도 찍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풍경이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3. 리조트 -> 리조트를 갑니다. 저희가 간 리조트는 수영장이있고 식당과 포켓볼장 그리고 바다수영과 스노쿨링, 바나나보트 등이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 날씨는 매우 더운 여름과 덜 더운 여름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지낸 시기는 덜 더운 여름으로 한국 초여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팔을 주로 가져가시고, 긴팔 옷들도 몇 개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전	수빅은 외국인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치안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입구에서 24시간 동안 가드 분께서 지키시고 있고, 개인 ID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는 좋은 시설은 별로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낼만 했습니다. 에어컨과 침대, 냉장고, 화장실 있을거는 다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학교식당은 현지 조리사 분께서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음식이 주로나오고 가끔 현지음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국이 정말 진국입니다. 아침에는 주로 빵과 딸기잼, 수프 가 나오고 계란, 소세지 등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교통	교통편은 시내로 나가기위해서는 차를 타고 10분정도 소요됩니다. 교통편은 주로 FB (작은 시내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나가시고 싶으시면 가드분께 말씀드리면 차를 불러줍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본인 개인지출	40만원	
합계	114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전 준비사항은 담당선생님들이 자세히 말해주시기 때문에 잘 따르시면 됩니다.
수영복은 꼭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수영할일이 많습니다.
약같은경우는 개인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약품들을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기숙사 내에도 상비약은 준비되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더욱 소통하고싶고 재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부족해서 재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어공부를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짧은기간이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지인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영어로 하는 대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지인 없이 혼자떠나는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와는 다른 공부를 하고있는 여러 사람들을 알았고, 그들과 추억을 쌓고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현지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점은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정이 많고,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통해서 그분들과 많은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